

민주 전남 시장·군수후보 경선 1~2주 연기 예비후보들 “원칙·기준없다” 분통

전략 수정 등 혼란 가중 불만 고조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이 연기되면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을 '현안할 정국'을 이유로 1~2주일 가량을 연기했다. 애초 도당 선관위는 6일부터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경선 날짜에 맞춰 선거운동을 해오던 각 예비후보들이 다시 전략을 재수정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9일 강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선일정이 최종 확정된 곳은 강진과 구례(12일), 영암(14일) 등 3곳으로, 애초 계획대로 경선이 치러진다. 또한, 나주와 곡성은 12일, 담양은 13일로 잠정 확정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4~6명으로, 후보 압축 과정이 필요한 광양·진도·해남 등은 오는 19일로 연기되는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전남지사 경선일(17일) 이후로 연기됐다.

시민배심원제도 일부가 적용되는 여수시장 경선일정은 18일로 잠정 확정됐으며, 중앙당 공심위에서 재심절차를 밟고 있는 함평군수 경선은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경선 중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치러질 예정이다. <표>

영광과 장성, 장흥은 단순 공천 후보자로 사실상 후보가 선정돼 경선을 따로 치르지 않으며, 신안은 전략공천 지역이다. 경선방식이 시민배심원제도도 적용되는 무안군과 최근 '체육관 경선'으로 경선방식이 바뀐 순천도

아직 구체적인 경선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순천시장 경선은 전남 대부분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과는 다르게 당원과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이른바 '체육관 경선'을 실시하기로 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정 연기에 따라 당초 발표했던 전남도당의 경선 일정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해왔던 각 후보들은 허탈감과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에는 경선 일정 연기에 대한 각 후보 측 논의가 이어지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전남 모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측은 "이미 예정됐던 경선날짜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그동안 경선 스케줄에 맞춰 진행해왔던 각종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도대체 경선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예비후보도 "지역마다 경선 방식이 뒤죽박죽이고, 일정도 고무줄 늘어났을 정도로 연기하면 어떡하느냐?"라며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애초 경선일정은 계획이었을 뿐 작정 확정된 경선일정은

■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

| 날짜 | 지역 |
|-----|----------------|
| 9일 | * 강진 |
| 12일 | * 구례, 나주, 곡성 |
| 13일 | 담양 |
| 14일 | * 영암 |
| 18일 | 여수 |
| 19일 | 광양, 진도, 해남, 완도 |
| 20일 | 고흥, 보성 |
| 21일 | 함평 |

*는 확정, 나머지는 잠정

없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전남 자치단체장 경선일정 확정은 사실상 연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골치 아픈 민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해 잠긴 채 앉아 있다. /연협뉴스

“왜 순천시장만 체육관 경선?”... 공방 격화

노관규 이의 신청에 서갑원 “당헌 따른 것”

중앙당 공심위 경선 방식 다시 논의할 듯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이 체육관 경선 방식으로 결정된 데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순천시장 후보 경선방식이 '당원 50% + 시민 50%'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직접투표에 의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최종 결정되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강력 반발하고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이에 서갑원 국회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순천시장 후보

경선전은 시작도 전에 난장판이 되고 있다.

노 시장은 공천방식이 결정된 하루 후인 지난 6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순천시장 경선방식으로 선택한 이른바 '체육관 경선'은 호남에서는 순천이 유일하다”며 경선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순천시장 후보 경선방식도 전남도 내 다른 지역과 똑같이 당원과 시민 모두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이날 중앙당 선거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노 시장은 이어 “서갑원 의원이 지역위원 장으로서 민주당 당규를 무시하고 동원 선거의 부작용이 예견된 체육관 경선으로 밀어붙였다”며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 전횡을 저지른 서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서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탈당은 성급하지만 탈당한 이성웅 광양시장과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오현섭 여수시장과의 무소속 연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7일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순천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노 시장이 '공작선거' 운운하며 애초부터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했던 바였으며 또 경선방식 결정은 당헌·당규에서 보장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인데도 자신의 유희리만을 따지고 있다”며 “더 이상 시비 삼지 말고 중앙당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 공심위가 조만간 순천시장 후보 경선방식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공심위는 전남도당 공심위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만큼 신중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당 공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당 공심위의 결정 뒤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추진 절차도 남아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ia@/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이정현 “공천서 호남 인사 배려해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7일 6·2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호남 출신 인사들에 대한 배려와 우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개 공천청탁' e-메일을 통해 “1990년부터 20여년간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전신에서 당직자로 활동했고 전국단위 직능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두 차례 훈장을 받았으며 출신지는 호

남”이라고 공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청을 한 A씨 신상을 소개한 뒤 “이 분이 2002, 2006년에 이어 세번째로 신성한 공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쟁력을 가진 분이려면 공천 조건으로 본적지를 따질 일이 아니다.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호남 출향민들의 한나라당 지지가 이어졌다”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려면 한나라당은 의도적으로라도 호남 출신 인사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난실 “중앙공원 센트럴 파크로”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7일 “광주 중앙공원을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광주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공원을 도심 속 모범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생태적 조성을 위한 민간활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원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 기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재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정재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5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광주를 모두가 행복한 명품교육 도시로 만들기란 주제로 무상급식과 청렴도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14. 25대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송광운 전세금 돌려막기”

이형석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송광운 후보는 2006년 북구청장 당선 이후 전세금 6천 만원에 살던 아파트를 구비 1억 원을 주고 관사로 전환하고, 계약해지한 전세금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광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장 많은 북구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광운, 이형석후보 선관위 고발

송광운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이형석 후보가 주민과 민주당원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후보 부인을 가정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이 후보는 '1차 경선 압도적 1위 통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북구 주민에게 대량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집 장애인 복지공약 발표

김영집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는 7일 장애인 지역의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문화 향유 및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 ▲장애인 그룹홈 증설과 지원 확대 ▲장애인인권협회를 구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비례 기초의원 후보 공모

민주당 광주지역 비례대표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에 대한 후보자 공모가 실시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2일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의 접수를 받는다. 비례대표 공역의원 및 서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공모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를 지참해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에 접수하면 된다.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신축상가임대(매매)

■ 대지면적 : 281㎡(93평)
■ 건축물면적 : 618㎡(184평)

| 층 | 권장업종 | 비고 |
|---|--------------------------------|------------|
| 1 | 회센터, 식음점, 편의점, 약국, 채식/고기뷔페, 보쌈 | 132㎡ (40평) |
| 2 | 피부관리, 의료 (가정의학, 한의원) | 171㎡ (52평) |
| 3 | 독서실, 의료 (가정의학, 한의원) | 132㎡ (40평) |
| 4 | 사무실, 학원, 당구장, 병·의원 | 132㎡ (40평) |

■ 특 징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1096세대와 기존 주택 세대수(20,000세대)가 인접함으로써 입점 상권 가치가 있으며 저렴한 임대 가능

탐공인중개사

임대 062)368-0789
문의 010-3602-4840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유기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백진동 - 참고용지/500평정도
-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점
- 중흥동 - 200평/대로점(100%대출가)상담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점(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점(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대로점(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세하동 - 700평/50만원(평당)/도로점
-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점 (물류창고 적합)
- 만평 풍암지구 수완지구
-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농성동 641-5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